

♡1 진리가 아닌 자유로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1931~2007)는 세계 철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면서 각광/비난을 받았다. 로티는 “진리는 저 바깥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진리라는 건 하나의 낱말이고 언어일 뿐이다. 따라서 문장이 없으면, 인간이 없으면 진리도 없다고 로티는 주장한다. 진리는 외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진리는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란 말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언어의 한 가지일 뿐이다. 그리고 “언어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진리란 언어적 단위체, 즉 문장의 한 속성”이다.

진리는 저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문장들이 저 바깥에 [인간의 정신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는 저 바깥에 존재하나, 세계에 대한 서술은 그렇지 않다. 세계에 대한 서술들만이 참이나 거짓이다. (...) 세계는 말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가 말할 뿐이다. 일단 우리가 어느 언어로 프로그램되고 나면, 세계는 우리가 신념들을 갖도록 하는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할 어떤 언어로 세계가 제안할 수는 없다. 오직 다른 인간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언어는 세계가 아니다. 언어는 세계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며, 인간이 만든 창안물일 뿐이다. 언어를 통해 세계 그 자체를 우리가 아는 건 아니다. 언어는 세계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렇다면 언어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되 언어 자체가 세계가 아니라는 건 이해해야 하는데, 우린 언어의 세계에 갇힌 채 언어를 맹신하거나 집착하곤 한다. 그래서 로티는 진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자극한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언어와는 다른 언어, 세상을 인식하는 기존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갖게 되면 나는 달라진다. “그 전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대신에 자유를 사고와 사회적 진보의 목표로 삼게 도와준다.” 진리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하다. 물론 자유란 말도 언어란 걸 잊으면 안 되겠지만.

♡2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와 마지막 어휘

리처드 로티는 인간의 본질이란 낱말도 언어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간’이란 본디 어때야 한다는 건 언어일 따름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 자유, 평등, 사랑, 인간성 등등은 믿고 싶은 어휘들로서 역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만들어진 우연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우연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과거처럼 생각하거나 세뇌된 걸 맹신하던 모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자유주의 사회 구성원의 주된 목적”이라고 로티는 주장한다.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언어, 즉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특정한 신념과 욕망을 논하게 해주는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 고대 중국인, 이튼 칼리지의 사람, 서머힐 사람, 진리성의 사람으로 사회화되는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인 우연성이다. 단순히 인간이 된다는 것에 의해 공통의 유대를 갖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는 것,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내 삶의 우연성을 깨달은 사람들을 로티는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라고 부른다. 자유주의자란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신념과 욕구들의 우연성을 직시하는 사람, 그와 같은 핵심적인 신념과 욕구들이 시간과 기회를 넘어서 무엇을 가리킨다는 관념을 포기해 버릴 만큼 충분히 역사주의적이고 명목론자인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란 고통은 줄어 들고 인간이 인간들에 의해 상처 받고 굴욕당하는 것을 희망하고 노력하되 그것이 역사의 필연이라거나 좋은 세상 만드는 게 주어진 숭고한 목표가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의심되지 않는 이념이나 신앙이 저마다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안에서 힘을 얻은 건 ‘우연’이다. 그래서 아이러니스트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연성을 깨달으나 그렇다고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의 신념이 우연에서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위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신념을 로티는 “마지막 어휘”라고 부른다. 마지막 어휘들이란 “우리가 때로는 앞을 내다보면서 때로는 뒤를 돌아다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낱말들이다.” 추구하는 낱말이 가리키는 가치를 당연하고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지만 곰곰이 파고들면 거기엔 모두를 설득할 합당한 근거나 무조건의 이유가 있지는 않다. 그래서 “마지막”이다. “그 낱말들은 사용자가 언어와 더불어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며, 그것들 너머에는 오직 어찌할 수 없는 피동성, 혹은 힘에의 의지의 호소만 있을 따름이다.” 로티는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아이러니스트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1) 그는 다른 어휘들에 의해서, 즉 자신이 마주친 사람이나 책을 통해 마지막이라고 간주되는 어휘들에 의해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사용하는, 마지막 어휘에 대해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의심을 갖는다. (2) 그는 자신의 현재 어휘로 구성된 논변은 이와 같은 의심을 떠맡을 수도 해소할 수도 없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3) 자신의 상황에 대해 철학함에서, 그는 자신의 어휘가 다른 것들보다 실재에 더 가깝다고, 달리 말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파워와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학을 하고자 하는 아이러니스트는 어휘들간의 선택이란, 중립적이며 보편적인 메타-어휘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으며 현상에서 실제로 가려지는 투쟁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낡은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과 놀이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본다.

아이러니스트의 반대는 형이상학자라고 로티는 설명한다. 형이상학자들은 “자신의 마지막 어휘 속에 어떤 용어가 현재한다는 것이 곧 그 용어가 진정한 본질을 <가진> 어떤 것을 지시한다는 확신을 준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형이상학자들은 낡은 서술들에 의존하고 상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데,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은 나름의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만났다고 생각하게 된다. “가령 기독교나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은, 재서술을 당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자아나 진정한 이익을 드러내주는 일에 해당된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이념과 종교의 재서술을 수용하여 어떤 ‘파워’를 얻게 된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진리가 되는 건 아니다. 아이러니스트는 얼마든지 다른 재서술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며 우월한 진리를 얻었다는 착각 속에 고착되는 걸 염려한다. 아이러니스트는 어떤 특정한 믿음에 갇히지 않았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이 옳다면 남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 어휘를 참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믿을 경우 해를 당하지 않고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게 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돌본다면, 진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 것이다.”

♡3 끊임없이 재서술하여 상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창안하기

아이러니스트는 언어의 놀이를 할 줄 안다. 그는 특정한 낱말이나 효과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재서술'한다. 아이러니스트는 “어떤 것이라도 재서술에 의해 좋게도 나쁘게도 보이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 어휘들 사이에 선택의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한다. 아이러니스트는 자신이 사용한 낱말들이 줄기차게 변화하리란 걸 항상 알고 있고 “자신들의 마지막 어휘들, 따라서 그들 스스로의 우연성과 덧없음을 항상 알고 있어서, 그 자기 자신을 결코 진지하게 간주할 수가 없다.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어휘는 “이미 형성된 기준에 따른 부지런한 탐구의 결과가 아니라 시적인 성취라고 간주”하는 아이러니스트는 상식을 의심한다. 한때는 산뜻했던 비유가 낡아지고 진부해지면서 상식이 되고 진리의 묶음이 된다. 그래서 아이러니스트는 “진리보다는 마음의 울림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아이러니의 반대는 상식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런 자의식도 없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습관화된 마지막 어휘로 서술하는 사람들의 표어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이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마지막 어휘로 구성된 진술들이, 다른 마지막 어휘를 채용하는 사람들의 신념과 행위와 삶을 서술하고 판단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아이러니스트에게 중요한 건 상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재서술하고 재창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이러니스트는 자신의 자란 작은 세계의 어휘에 고착되는 걸 두려워한다. 따라서 낯선 만남을 적극 시도하고 자신을 새롭게 재서술하려고 한다. “우리 아이러니스트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재서술을 거쳐 우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인간의 개성이나 자율성은 내면에 본래 있지 않다.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생겨나지도 않는다. “자율성이란 특징의 구체적인 인간들이 자아창조를 통해 얻고자 희망하는 것이요, 오로지 소수만이 실제로 얻게 되는 무엇이다.” 역사 내내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아창조를 했다. “자신의 마음을 창안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은 언어에 의해 마음의 길이가 설정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언어를 창안한다는 것이다.” 우연히 형성된 물질의 토대와 특정한 역사가 펼쳐지면서 생겨난 사회의 자유 덕에 요즘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걸 아이러니스트는 알고,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길 노력한다.

아이러니스트가 마음에 품고 있는 판단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그는 자신의 용어로 자신의 삶을 요약할 수 있기를 원한다. 완전한 삶은 그의 마지막 어휘가 최소한 온전히 그의 것이었다는 확신 속에서 마감되는 삶이 될 것이다.

♡4 개인 영역과 공공 영역의 분리

여태껏 형이상학은 개인의 삶과 공공성을 결합하고 통일시키려 했다. “형이상학은 작고 사적인 규모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크고 공적인 영역에서 승화된 모습을 보여 주길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희망이 없다”고 로티는 단언한다. “아이러니스트는 그들의 마지막 어휘 내부에서 사적-공적인 것의 분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한다.” 암만 신앙과 신념이 강해도 인간은 사회생활에서 드러나는 면과 사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론가들은 이를 일치시키려 안간힘을 썼는데 로티는 분리를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어떤 신념이나 종교를 추종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굴욕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로티는 개인의 사생활과 다른 인간들에 대해 갖는 의무감을 통합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자유로운 문화를 주장한다. “자아창조의 요구와 인간의 연대성의 요구를 똑같이 타당하지만 영원히 공약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어떤 학문이든 신념이든 종교든 모두가 사회약자를 위해 투사가 되고 공공영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덜 혜택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 생활에 심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의 목표라고 간주”하자고 로티는 제안한다. 자아창조와 사회정의는 더불어 논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 사생활에 몰두하자는 건 아니다.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는 단지 타인들에게 굴욕을 주는 것을 피하는 <친절해진 기회들>이 재서술에 의해 확장되기를 원한다. 그는 굴욕에 대한 공통된 감수성의 인식이야말로 필요한 <유일한> 사회적 유대라고 생각한다. 형이상학자는 도덕과 유관한 다른 인간 존재들의 특징은 가령 합리성, 신, 진리, 역사 등과 같이 공유된 더 큰 파워에 대한 그들의 관계이어야 한다고 간주하는 반면에, 아이러니스트는 도덕과 유관한 인간, 즉 도덕적 주체에 대한 정의는 “굴욕받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 인류의 연대성에 대한 아이러니스트의 센스는 공동의 소유나 공유된 파워가 아니라 공동의 위험에 대한 느낌에 기초한다.

자유주의 아이러니스트는 나의 마지막 어휘로 생겨난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굴욕이나 상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른 마지막 어휘를 가능한 한 많이 익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상상을 통해 인간 사이의 연대가 이뤄진다. 연대는 당연한 게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하나의 목표이고 창조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낯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굴욕의 특정한 세부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창조된다.” 감수성이 늘어나면서 타인의 고통을 줄이고자 연대하게 된다. “인류의 연대성은 공통의 진리나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통된 이기적인 희망, 자신의 세계—사람들이 그것들을 둘러싸고 자신의 마지막 어휘를 직조한 자그마한 것들—가 파괴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공유하는 문제이다.” 마지막 어휘가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주는 사회를 로티는 말한다. 물론 굴욕을 주지 않으려는 ‘마지막 어휘’는 우연히 발달한 역사의 결과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폭넓은 연대가 창조되도록 노력한다. ‘우리’에서 시작하여 우리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를 넓혀서 그들을 포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물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인간성 자체”와 동일시된 것으로서의 인간의 연대성과, 지난 수세기 동안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차츰차츰 고취되어 온 자기-의심으로서의 인간의 연대성을 구분하고 싶다. 이 의심은 타자의 고통과 굴욕에 대한 자신의 감수성에 관한 것이며, 현재의 사회 제도들이 이런 고통과 굴욕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의심이며, 가능한 대안에 관한 호기심이다. 인간성 자체와 인간의 연대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이것은 철학자의 고안물이며, 신과 같이 된다는 생각을 세속화하려는 조아야한 시도이다.

아이러니스트의 주장들은 곧잘 비난을 받는데, 열광의 신앙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형이상학자가 제시하는 것과 똑같은 사회적 희망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 때문에 타인과 싸우는 일이 줄어들게 되며 자신의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안겨준다.